

일 주 문



불교환경연대 생명건강방생법회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은 2월 23일 여주 신록사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제'를 봉행한다. (031)885-2505



법무부 공로상 수상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월 10일 서울구치소 교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보우승가회 회장 취임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능해 스님은 1월 27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국대-사마르칸트대 학술교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외국어대학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어린이 생태 문화탐방교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은 2월 6일 서울 인곡동 삼정공원에서 '겨울방학 어린이 생태문화탐방교실'을 개최한다. (02)745-5813



교수불자연합회 2010세미나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외국사찰 비교 통한 사찰환경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군불총 정기법회
박정익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취임 첫 군불총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 748-7752



대불청 대의원장 선출
정인택 대한불교청년회 신인 대의원장은 1월 24일 제5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됐다.



공불련 성지순례 봉행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감사원 감사위원)은 1월 22-24일 중앙행정기관 임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 교토의 동대사·청수사를 성지순례 했다.



불교인재원 백련암 템플스테이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2월 6-7일 해인사 백련암 템플스테이를 봉행한다. (02)735-2428

“어려운 스님부터 도울 것”

교단자정센터, 김원보 신임대표 기자회견

“어려운 스님들을 도와 교단 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교단자정센터 김원보 신임대표는 1월 2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원보 대표는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 중 29%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출세가 구분을 떠나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년 임기(2010-2013년)의 대부분을 ‘세이브 상가(Save Sangha) 캠페인’에 할애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부처님이 제안한 이상적인 인류공동체 ‘상가(僧伽, 스님들의 공동체)’를 되살리자는 목표에서 기획됐다.

그 첫번째로 교단자정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스님들의 건강의료보험 및 승가공동체(의료, 교육, 주거, 생계)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생활전수조사와 세미나 등을 거쳐 11월 ‘세이브상가위원회’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 대표는 “10년간 해온 교단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면서 바뀌어 갔다”며 “특히 불교계에 만연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중법을 법적인 논리로 접근해 개정을 요청할 것이

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보 대표와 불교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불교는 자연스럽고 친숙하다. 특히 의사가 불심이 특색 했는데, 그중 의사촌충생이 출가해 스님이 됐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절에 가는 모습, 아버지가 사경하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며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교단자정센터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보 신임대표는 서울대 졸업, 한국감정원 감정역, 감정평가사자격 이사와, 불교아카데미 마이 리더스클럽 4기 수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쳐 현재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bxz0211@buddhapia.com

‘2010영산재’ 성공 개최 결의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 회의

태고종은 1월 26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영산재 대법회 ‘2010영산재’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인공 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회의에서 “이번 영산재 봉행은 종도 대화합과 통합이 이뤄져 종단 위상이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 총무원장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들은 “2010영산재”를 원만히 봉행하는데 전국 각 지역의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영산재를 통해 종단이 한 차원 높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한편, ‘2010영산재’는 오는 3월 11일 오후2시-4시 율림피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영산재 대법회에는 시연



26일 개최된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회의.

할 120여 명의 여산단과 전국 3200여개의 사찰, 전국 15,000여 명의 종도가 동참해 전국 규모의 대법회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 창립준비위원장 혜산 스님(총무원장총무원장)이 아이티의 지원 구호성금으로 500만원을, 여래사 법주 스님이 종단발전기금을 각각 총무원에 전달했다. 태고종은 아이티 재난 극복 기도법회를 봉행하며 지원금 구호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노덕현기자

“아집 편견 버리고 화합하라”

(사)대한불교법사중, 대관식·대법사 취임대법회



법사중은 종정 법산 스님 추대를 계기로 화합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사)대한불교법사중(총무원장 덕천)은 27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제3회 종정 법산 대중사 대관식 및 제5대 총무원장 덕천 대법사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종정협회의 이사장 지산 스님, 한국종단협 회장 의륜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만이 옳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으며, 신임 총무원장 덕천 법사는 취임사를 통해 “호국불교, 생활불교, 현대불교의 실천적 구현을 이루기 위해 정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75-7783

총무원 법당 개원

임시중앙종회 진행



27일 열린 일불선교종 임시중앙종회.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27일 서울 인수동 총무원에서 ‘총무원 법당 개원 및 임시중앙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화엄 스님, 전 일불선교종 회장 도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5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총무원 법당 개원으로 종도의 구심점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원법회 후 제36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결산감사보고 등 종회 안건을 의결했다. (02)998-8161

승만부인으로 다시 태어나...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 봉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했다.

선정기념식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 전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제4차 여성불자 선정인들에게 “베를머 사는 보살의 삶, 불제자로서 5계를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불자로서 이웃과 세계의 행복을 이끌어 달라”며 “자신의 전문역량을 교단과 사회에 발휘하는 소리가 없는 포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성 스님은 “4차에 걸쳐 선정된 420여 ‘여성불자 108인’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자신이 지닌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각 분야, 포교·신행 면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정법수호와 증생교화를 위해 회향하는 모범을 세워 달라”며 “승만부인으로 다시 태어나 법정법(攝受正法)의 서원을 세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분야에서 제4차 108인 여성불자에 선정된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법·제도·정책적인 분야에서 불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신앙을 대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화분야에 선정된 홍라희 관장(前 삼삼미술관, 문화예술)은 “혜종복을 이끌어 달라”며 “자신의 전문역량을 교단과 사회에 발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기념사, 축사, 108인 선정 경과보고, 선정소감발표, 선정증 수여, 축하공연, 승만부인 10대원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지도자의 산실 대원불교대학이 보다 편리해진 교통(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으로 불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모집과정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대학, 대학원 과정 주·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4과목)
명상심리치유학과 대학과정 주·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4과목)
*특전: 각 학과를 수료하여 소정의 자격고사를 실시하여 불교상담사, 명상치유사, 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대학과정: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원서접수
2010년 2월 28일까지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입학식 2010년 2월 28일(일) 오후 2시 대원정사 큰법당

문의 대원불교대학 T. 02)732-7209 FAX. 771-6796
서울 용산구 갈월동 59번지 8호 대광빌딩 3층

